

이 나선 게임업계 ! 신작 쏟아진다

사들이 하반기 대형 MMORPG(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따르면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대형 신작을 최근 수년간 게임 외 영역인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신사업 와 완성도를 앞세운 정통 작품 중심 전략으로 방향을 튼 것이 는 가운데, 각사는 고정 유저층 확보와 글로벌 확장을 위한 장 신작 혹은 출시일 공개 단계에 도달했으며, 콘솔과 PC, 모바일 등 다. 업계 관계자는 “MMORPG는 초기 개발비 부담은 크지만 있다”며 “국내 게임사들이 본업 중심의 재정비를 통해 실적



/유투이미지

으로 다변화된 유저니즈 충족



/넷마블

활용한 고사양 그래픽과 빠른 모바일 환경에서도 콘솔 수준 기대한다.

또한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은 오픈월드 기반의 3D 액션 RPG로, 기존 2D 기반의 원작 팬층뿐 아니라 캐릭터 육성 중심의 유저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콘텐츠 설계가 이뤄지고 있다.

넷마블은 각 게임별로 지역 타깃 유저군을 정밀 분석해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크로스 플랫폼 대응 전략과 스트리밍 중심의 홍보 캠페인을 동시에 운영한다.

일부 타이틀은 이미 글로벌 열리 엑세스나 베타 서비스 중이며, 사전 예약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하반기 라인업은 단순 수량 확보가 아닌, 장르 다양성과 글로벌 확장성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조합”이라며 “다변화된 유저 니즈를 충족하고 실적 회복의 기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팬층부터 신규 모바일 유저까지 공략

스마일게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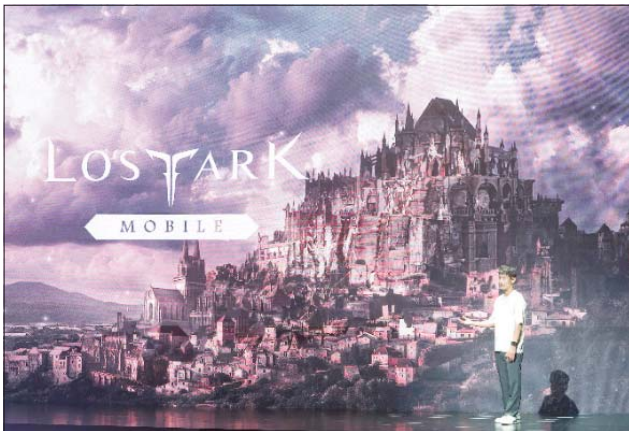
로스트아크 모바일

비공개 테스트·대규모 쇼케이스로 호응 유도

스마일게이트는 자사의 대표작 ‘로스트아크’ IP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신작 ‘로스트아크 모바일’을 내년 상반기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비공개 테스트와 대규모 쇼케이스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출시 전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오프라인 체험 행사에서는 일부 유저에게 개발 중인 시연 빌드가 공개됐다. 당시 참석자들은 원작과 유사한 전투 템포와 그래픽 완성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UI/UX(사용자환경/사용자경험)와 터치 기반 조작의 편의성에 높은 점수를 줬다.

‘로스트아크 모바일’은 원작의 시네마틱 연출과 광범위한 콘텐츠를 유지하되, 모바일에 맞춰 플레이 템포와 UI 구성, 전투 컨트롤 시스템을 재설계한 독립형 게임으로 개



이정환 로스트아크 모바일 디렉터가 지난 18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게임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발 중이다. 스마일게이트는 이를 통해 PC 기반의 기존 팬층은 물론, 신규 모바일 유저 유입을 동시에 노린다.

회사 관계자는 “단순한 포팅이 아닌 ‘재해석된 로스트아크’로 모바일 RPG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원작 세계관을 확장함으로써 브랜드 충성도를 강화하고, IP 생태계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주얼 액션·슈팅 장르로 포트폴리오 다변화

넥슨

슈퍼바이브·아크 레이더스

글로벌 라이브 운영 경험 전면 반영

넥슨은 올해 하반기 ‘슈퍼바이브’와 ‘아크 레이더스’ 두 타이틀을 통해 캐주얼 액션과 슈팅 장르에 도전장을 내민다. 이는 기존 MMORPG와 라이브 서비스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장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슈퍼바이브’는 오는 7월 24일 글로벌 정식 출시된다. 실시간 멀티플레이를 기반으로 한 팀 액션 게임으로, 빠른 템포와 캐주얼한 그래픽, 전략적 협동 요소가 결합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열리 엑세스 테스트에서 서버 안정성과 매칭 시스템, 파티 구성이 호평을 받았다.

10월 말에는 PvPvE 기반의 협동 슈팅게임 ‘아크 레이더스’가 출시된다. 이 게임은 오픈월드 환경에서 AI 적군과 유저 간 전투가 병행되는 독특한 전투 구조를 도입했으며, 물리 기반 액션과 루팅 시스템, 동적 날씨 변화 등을 담



넥슨, 신작 MOBA 배틀로얄 ‘슈퍼바이브’ 오는 24일 정식 출시 예고.

/넥슨

재해 몰입감을 높였다.

넥슨은 이들 신작을 통해 ‘퍼스트 디센던트’와 ‘메일드 엑스퍼트’에서 축적한 글로벌 라이브 운영 경험을 전면 반영한다. 특히 북미·유럽 유저의 플레이 성향 분석을 기반으로, 서버 안정성과 유저 커뮤니티 관리를 강화한 것이 핵심 전략이다.

유저 편의성 강화해 P2E게임 글로벌 확산

위메이드

레전드 오브 이미르

국내 정식출시 앞뒤… 글로벌 버전은 사전예약 진행

위메이드는 하반기 중 MMORPG 신작 ‘레전드 오브 이미르’의 글로벌 버전을 출시한다. 이 게임은 북유럽 신화를 배경으로 한 다크 판타지 세계관과, 블록체인 기반 보상 시스템이 결합된 P2E 게임으로 기획됐다.

국내 정식 출시는 앞두고 있으며, 글로벌 버전은 현재 사전예약이 진행 중이다.

위메이드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를 기반으로, 아이템 거래와 캐릭터 성장 요소에 암호화폐 보상 구조를 탑재해 유저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위메이드는 ‘미드나잇 워커스’, ‘라이즈 오브 스타즈’ 등 콘솔·PC 기반 신작 2종도 연내 열리 엑세스 형태



위메이드의 ‘레전드 오브 이미르’ 시즌2 업데이트 대표 이미지.

/위메이드

로 공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도 다양한 플랫폼 대응을 동시에 추진한다. 유저 편의성과 보상 구조의 정합성을 강화해 기존의 P2E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콘텐츠의 완성도와 IP 확장성을 강화하면서, 다시금 정통 MMORPG와 대형 신작 중심의 전략으로 회귀하고 있다. 과거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등 신사업 위주로 이탈했던 자원을 다시 게임 본연의 재미와 지속 가능한 라이브 서비스 체계로 회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 실적 회복을 넘어, 글로벌 시장 재진입과 사용자 충성도 회복이라는 중장기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주요 신작 성과는, 각 게임사의 재무 안정성뿐 아니라 한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회복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oul.co.kr